교종본찰 봉선사, 佛法 겨루기 '야단법석'

10월 1일 '제1회 교리 경시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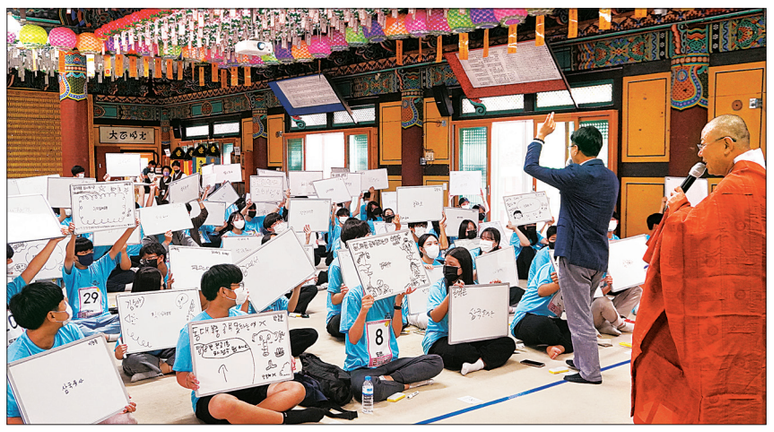
남양주 봉선사=송지희 기자

개산 1053주년 맞아 첫개최 '눈길'
어린이 30 · 청소년 130여명 참여
10월 2일엔 일반부 대회도 진행

교종본찰 봉선사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겨루는 야단법석이 열렸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비가 엇갈렸다. 때론 웃음과 박수가, 때론 아쉬움이 담긴 한탄이 터져 나왔다. 10월 청량한 가을하늘 아래 경내 청풍루는 내내 떠들썩한 활기로 들썩였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1일 개산 1053주년을 맞아 경내 청풍루에서 '제1회 봉선사 교리경시대회-도전 부처님 말씀 겨루기'를 개최했다. 봉선사를 중창한 운허 스님의 한글 대중화 원력을 계승한 첫 교리경시대회인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한 불교교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첫 경시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봉선사 어린이법회 20여 명의 어린이가 동참한 대회는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청소년부는 종립학교 학생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됐다.


봉선사 교리경시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답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어린이부 대회는 매주 일요일 봉선사에서 사찰문화와 불교교리를 배워온 어린이법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부는 종립학교 학생 중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참가자가 모집됐다. 특히 청소년부의 경우 참여인원이 많은만큼, 어려운 문제에 대한 특별상품도 마련돼 호응이 높았다.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왕비께서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고 장차 전륜성왕이 되실 분을 잉태하셨는데, 이는 누구일까요?'

화이트보드 위로 검은 마카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부처님, 고타마 싯타르타, 고타마 등 답변들이 모두 정답 판정을 받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를 미처 쓰지 못한 어린이들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대열을 벗어났다. 전체 참가자 60% 이상 탈락시 패자부활전도 진행됐다.

한시간여 이어진 열띤 경쟁 끝에 어린이부 대상은 이진우, 금상 김도연, 은상 이의정, 동상 박다연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청소년부는 대상 하정우, 금상 서현건, 은상 김슬아, 동상 강수연 학생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도 봉선사가 준비한 기념품이 선물로 증정됐다.

주지 초격 스님은 "봉선사는 과거 한글 대중화를 이끌었고 스님이 되기 위해 승가고시를 봤던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이 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심신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내년부터는 한글날 즈음 더 많은 상금과 선물 등으로 규모를 키워 진행하고자 한다"며 "봉선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봉선사를 참배하고 경내를 둘러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언제든 자주 찾아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봉선사는 10월 2일 오후 1시 일반부 대상 교리경시대회를 이어갔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내 큰법당 앞에서 개산 1053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가을 꽃 만끽하며 생명존중 실천해요"

10월 1~10일 고양 호수 공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나서
인식개선 교육 · 체험 활동 성황
일면 스님, 환경 캠페인도 동참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가장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10월 1일 '2022 고양가을꽃축제'가 열린 고양 일산호수공원 일대에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다양한 가을꽃들이 가득한 공원 중간에 부스를 마련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이기도 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축제에서 장기기증 운동 확산을 위해 열띤 홍보를 펼치며 생명나눔 가치를 실현해 의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비즈 꽃반지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펼쳐 꽃축제에 참가한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일면 스님이 직접 장기기증 희망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알싸한 국화향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들로부터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이 갖는 의미를 배우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민들은 체험활동 이후 자발적인 기부참여와 정기후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7살 아들과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스를 찾은 김수경(39) 씨는 "부정적 선입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등록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아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등록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와 함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공원을 찾은 부부는 "가족과 함께 나왔다가 의미 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면서 "우리 가족의 정성이 훗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이날 부스를 직접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일면 스님은 "이번 캠페인은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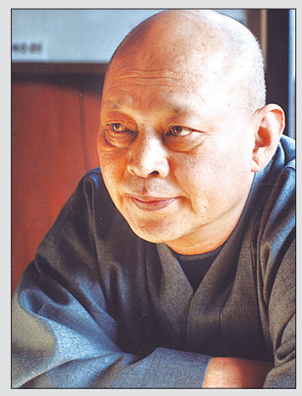
일면 스님은 이날 고양시가 마련한 환경친화 프로그램 '줍깅 캠페인'에도 참여, 생명사랑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2시간에 걸쳐 호수공원 일대를 두루 걸으며 쓰레기 줍기에 동참한 일면 스님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이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임은호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언론인상 정휴 스님

조계종 10월 6일 수상자 발표

대상 '빼앗긴 들에도…' 수상
첫 웹툰 수상작…시대상 반영
오는 10월 26일 시상식 개최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수상했다. 불교언론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에서는 정휴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6일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선정됐다. 웹툰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위원장 탄원 스님은 "올해 대상 작품이 웹툰으로 선정된 것은 뉴미디어 시대를 반영하고 불교 콘텐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 선정"이라고 밝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공명 작가의 데뷔작으로 2019년 제1회 NC버프툰 글로벌웹툰스타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어머니의 태몽에 나타난 부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해송'을 빼앗긴 주인공 숙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작품의 큰 물줄기이지만, 주인공의 성장과 치유의 배경은 불교에 기반한다. 또한 주인공이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만나는 장면 등은 마치 한 폭의 불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불교언론인상에는 BBS불교방송, 법보신문 등에서 활동한 정휴 스님이 선정됐다. 정휴 스님은 1990년 불교방송(BBS) 초대상무,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사장, 주간, 편집국장, 주필 등을 두루 역임하며 불교언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탄원 스님은 "언론인상을 수상한 정휴 스님은 방송언론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불교언론의 기틀을 마련한 스님으로 언론인상 수상이 늦은 감이 있다"고 수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최우수상은 KBS '다큐인사이트 특집 2부작 사유의 탄생'(방송부문), BBS 라디오 환경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인드라망'(라디오 부문), 서울신문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신문 부문), 불교신문 TV '불교에 진심 인(人)'(뉴미디어 부문)이 선정됐다.

한편,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 법회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서
금강산 4대 사찰 주제 사진전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내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추본은 북한식 정주년에 해당하는 15주년을 기념, 당초 금강산 신계사 현지에서 남북불교계가 함께하는 합동법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 가는 길목이자 금강산 조망이 가능한 통일전망대에서 봉행하게 됐다.

민추본은 이와함께 2018년 개관한 통일전망타워 3층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그리고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념사진전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과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이 전시된다. 또 유점사와 함께 금강산 내 본사 사찰이었던 건봉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된다. 사진전은 10월 27일~11월 2일 1주일간 열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go green

꿀 피부 세안 습관

eco house

EM 발효치약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 자몽 종자에서 추출한 천연 방부제, EM과 각종 천연 성분을 함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약. 임플란트 염증 제거에 효과.
값 10,000원 (소 4개) / 6,000원 (180g)

EM(유용미생물) 종균
일본 EM유용미생물 개발자 히가 교수(오끼나와 농학박사)와 기술제휴로 생산된 EMRO 오리지널 유용 미생물 종균.
값 10,000원 (1리터)

EM 두피모발 & 바디워시
아미노산 영양과 한방약효가 두피 케어 탈모 방지, 발모 촉진에 탁월. 저자극 약산성 바디 샴푸, 손에 조금만 묻혀도 풍부한 거품과 린스 효과.
값 6,000원

EM 쪽 보습 비누
쪽을 발효하여 아토피 등 각종 피부 트러블에 효과.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 유지.
값 3,500원

EM 미네랄 보습 비누
지장수의 미네랄을 듬뿍 함유. 피부 깊숙한 노폐물, 체취 제거.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 유지.
값 3,500원

EM 홍삼한방비누
메이크업 세정 및 전신 사용 가능한 올인원 클렌징바. 쉽게 물러지지 않는 단단함.
값 3,500원

스킨비바
아주 민감한 피부용. 피부결까지 다듬어 주는 최고의 미용 비누
값 6,000원

EM 주방 비누
인체에 유해 성분이 없는 안전한 설거지와 주방 용품의 찌든 때 제거에 탁월 (값 3,500원)

EM 세탁 비누
목초액과 EM으로 만들어진 고급 의류 전용 비누, 뛰어난 세탁 효과 (값 1,600원)

EM 고농축 중성 세탁 세제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와 EM으로 만든 중성 세탁 세제로 섬유 유연제가 필요없음. 대용량 세탁시, 생수병 뚜껑으로 2개만 넣어도 충분하며, 쉽지 않아도 땀 냄새가나지 않음.
값 1050ml 8,000원 / 2.2리터 15,000원

EM 안심주방세제
코코넛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 천연방부제와 EM으로 만든 과일, 야채까지 세정 가능한 고농축 1종 세제.
값 500ml 6,000원 / 1050ml 11,000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지구사랑 작은실천

EM쌀뜨물발효액이 하천과 바다를 정화하는 이유

쌀뜨물을 EM(유용 미생물)으로 발효시키면 쌀뜨물 속에 있는 영양분인 단백질, 지방 등이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고 유용한 미생물(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이 증가하여 썩은 오니를 분해시키며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 하천과 바다 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
- 그중에 60%가 쌀뜨물!!
-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물 500리터가 필요!
-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

매일 버려지는 쌀뜨물을 EM(유용한 미생물)로 발효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 정화제로 활용하는 'EM지구사랑 작은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쌀뜨물로 EM쌀뜨물 발효액 2리터 만들기

발효시 발생하는 가스 공간 5cm
가능한 쌀뜨물을 가득 채우세요
쌀뜨물이 부족한 경우 물을 채워주세요

쌀뜨물 1컵 이상 / EM원액 3뚜껑 / 설탕 2큰술 / 천일염 1 티스푼

Point 가스 공간을 제외한 페트병 전체에 쌀뜨물을 채우세요.
발효에 필요한 쌀뜨물은 최소한 1컵 이상입니다.
가능한 쌀뜨물을 모두 넣고, 부족한 경우 물을 채워주세요.

합성세제의 유해성

잔류된 합성세제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수 시설로는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돗물에 섞여 들어오거나, 수돗물의 소독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EM 쌀뜨물 발효액 사용법
1) 주방세제, 세탁세제, 설거지에 섞어 쓰면 세제독 중화
2) 야채, 과일 씻은 후 10분정도 담궈두면 농약 중화
3) 고기나 생선 씻은 후 10분정도 담궈주면 냄새제거
4) 음식물 쓰레기통에 분사해주면 날파리 방지
5)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 가스렌지 찌든때에 분사
6) 화장실, 애완동물 악취 등, 각종 악취제거에 다양하게 활용
7) 세탁시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냄새제거, 뽀송뽀송한 빨래
8) 목욕시 사용하면 아토피, 피부 트러블에 효과
9) 피부 트러블에 자주 분사하면 큰 효과

(사)지구사랑 작은실천 전화 031)473-2947, 010-5095-0509